

박영숙(Y연합회 공보출판위원)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한국사회와 많은 제약속에 있는 학원에서의 학생운동을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의 YWCA 활동 중에서 대학 Y 와 같이 한 시기는 마음속에 가장 향수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생의 열을 뿜을 수 있고 미지의 세계로 뻗어나려는 의지와 희망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향상을 위해 치달을 수 있고 무엇에나 몰두할 수 있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시기로 생동감 넘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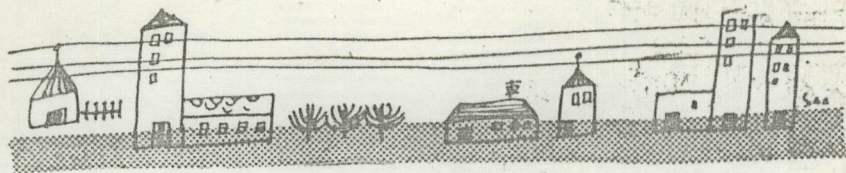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둘의 탄생이 있다고 하는데 제1의 탄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제2의 탄생은 세계와의 만남에서 자기선택적인 책임있는 자기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대학생 시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아 대학 Y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Y 의 조직체내에서의 대학 Y 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지방 Y 조직보다 더 운동체로서의 가능성이 대학 Y 에 많기 때문이다. 자칫 Y 프로그램이 운동체로서 보다는 기관이나 사업체로 성격화 될 경우를 생각해서이다.

주어진 제목자체가 이미 대학 Y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학생기독교 운동이 교회와 학원내에서만이 아니라 민족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공헌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지 또는 방향을 정하려고 할 때 자신의 정체파악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자기를 상실하고서는 그 무엇을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기독교 운동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60년대의 학생 기독교 운동을 가톨릭 운동의 전성기라고 할 수도 있다.



세계 기독교학생 연맹(WSCF)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YW, YM, KSCF 의 협의체인 KSCC 에서 단순한 기독교신앙 운동에서 사회 의식을 강조하는 학생기독교운동의 성격을 형성하며 학원 선교를 담당하였었다.

그 때 당시의 학생 기독교 운동의 본질은 행동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며 주체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장소는 대학 캠퍼스로 생각 해 왔다.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 하는 것으로서 대학내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단한 기독교자들이 모일 때 대학에서의 교회의 현존을 이룩할 수 있었다.

70년대의 학생 기독교운동의특성
60년대 말에 학생 기독교 운동의 입원화의 요청으로 YM 과 KSCF (한국기독교학생연맹)가 통합하여

구성한 KSCM 의 자체평가를 보면 학생 기독교 운동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모든 운동의 특징 이었던 연합운동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식인운동, 민중운동, 기독교운동, 그리고 일반사회운동과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학생 기독교 운동이 선구적인 파이롯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형성한다.

1. 학생과 기독교인이라는 신본적인 울타리를 뛰어 넘어서 민중운동에 일반운동에 과감히 참여 하여 폭넓은 연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학생기독교운동이 민족적 과제에 부단히 접근하는 기반을 다져오다. "학사단운동"이라는 현장지향적인 운동을 전개한 것도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대학 Y 가 "Student Power" 를 사회정의 실현에"라는 구호 밑에

아파트, 평화시장, 혹은 농촌
의료봉사등으로 활발한 운동의
모습을 보여 준것도 이 무렵의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학 Y는 1971년도 광주 피정센터
에서 열렸던 대학 Y 동기대회에서
대학의 정상화는 물론 비정상적인
사회풍토의 정상화 그리고 교회
갱신에 이르기 까지에 관심을
표명한 "사회정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Y 반백년사에
기록되어 있는데(P208) 여기서
눈을 한번 돌릴 필요가 있다.

2. 학생 기독교 운동의
이념은 통합 당시부터 교회갱신,
사회정의, 학원의 민주화라는 세가지
영역의 과제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과제임이
확실히져 이것을 민족사적으로는
분단상황 극복으로서의 통일과
세계적으로는 제3세계의 총체적
자립과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인식하다.

3. 기구조직 및 활동양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초기의 공식기구
중심의 연합활동에서 각 개체의
소집단 활동으로 전환하는 양식을
보여오다. 학생 기독교 운동에
가해진 억압의 강화와 공식기구
활동영역 제한과 축소 그리고
문제 의식과 활동방식의 첨예화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저변확대를 이룩할 수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양적인
확대가 불가능 했고 연대성
형성이 제약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4. Issue에 따라 적게 간헐적
으로 움직이던 것을 지양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함시 할 수
있는 운동체로서의 이론과 실천력의
기반을 닦다. Issue의 유무에 좌우
되는것이 아니라 명확한 역사의식과
지향하여야할 과제에 근거하여
주체적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역량이 생기다. 60년대에 비하여
성숙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학생
기독교 운동의 민족사적인 맥락에서
존재하는 운동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성취한 중요한 업적이며 이러한
흐름은 정착되었고 현재도 당면
과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1970년대의 KSCM의 학생
기독교 운동이 양, 외향적으로
위축된 것 같으나 내적으로 성숙을
이룩하고 있는 시기에 학생 기독교
운동이 일원화 되는 과정에서 대학 Y는
YWCA와 여성운동이라는 특성유지를
위해 독자성을 선언하고 학생 기독교
운동으로서의 대학 Y를 재정비 했었다.

그러나 초창기 부터 WSCF 의
가맹단체로서 YWCA 내에서는
지방 Y 와 동등한 위치에서 운동을
전개하여 온 대학 Y 가 지방 Y 에
소속되게 됨으로 회원의 종류가
캠퍼스와 센터 회원으로 다양해
지는 등의 변화와 더불어 양,
외향적인 위축 뿐만 아니라
질적 및 내면적인 약화를 초래하다.

이러한 학생 기독교 운동의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와 "만인사제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선교"란 -
1952년도 독일에서 열렸던
선교대회에서 선교의 목적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세 서구의
정교분리 주장에 의해 교회와
세속을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역을
교회안에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교권주의자들의 주장을
뒤엎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은 교회형태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선교 하신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 Missio Dei "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바탕
위에 YWCA 운동과 학생 기독교 운동의
설 자리는 마련된 것이다.

선교란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는
그럼으로 한국의 역사 현실 속에서
한국(세상)을 섬기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역사현실과
동 떨어진 선교과제는 엄격한
의미의 선교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기독교운동의 활동무대는
교회나 학교만이 아니라 전민족,
전사회가 되는 것이다.

"만인사제론"은 종교 개혁시에
루터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서 중세
서구에 팽배해 있던 성직자와
평신도를 안수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권리와 의무를 교회법으로
법제화 하므로 우열과 열등의
이중구조를 형성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의 평신도(Lay)를
피선교자의 자리에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서 순종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처지에서 "선교자"로 해방
시키는 폭탄적인 선언이다.
이 선언으로 해서 YWCA 나 대학 Y
운동이 평신도 운동체로 될 수 있다.
원리면에서 이러한 계급적 이원적
구조는 폐지 되었지만 아직도 교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켜근 교회 제도가 교역자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지적되기도 한다.

종교학의 흔적이 없었던 예수의 생애도 "하나님의 선교"와 일치되는 것으로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의 선교현장인 한국 사회는 어떤가? 사회는 교회의 정복대상이 아님은 자명하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산업사회 즉 물질문명 사회로서 이른바 제3세계가 가지고 있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 예측성이나 자생적 근대화가 아닌 외세에 의한 강제적 근대화의 경험등의 공통점을 들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국 고유의 사회성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식구조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는 또한 극동 아세아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즉 유교전통이 오래 지배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 뿌리가 깊다. 유교전통이 한국에 더욱 심했던 것은 "주자학"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로교에서 칼빈을 내 세우듯이 주자학에 대한 논쟁으로 장력소모한 셈이다. 주자의 해석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으로서 당파싸움과 분파현상을 초래한 그 결과 행동보다는 사변에, 내실보다는 명문에 치우쳐서 허례허식에 빠지고 체통과 체면 유지에 급급한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상부층의 것으로서 과거의 양반과 오늘의 기업주와 관리주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하부층 소위 민중(오늘의 노동자와 국민 지칭)은 어떠했나? 유교는 지배자의 윤리였으므로 그 범주에 끼지 못하는 민중에게는 한탄, 쌓이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은 두가지 형태의 삶을 유지한다.

- 1) 영리한 민중들은 삶의 목표를 상부층과 같이 되는 것에 두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자리를 돈으로 사는 데 힘 썼다.
- 2) 이들도 역시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가 아니면 샤마니즘과 결합하고 한풀이나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자포자기하는 현상이 더욱 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사회 현상에 옮겨지면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수의 민중은 무당을 찾거나 교회에서도 무속적인 신앙에 매달리고 따라서 교회는 여기에 영합하는 현상이 생겨진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국인에게 생활철학이 있다면 한(고난)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1) 숙명적 체념 2) 눈치로서 사는 처세술 3) 은둔적 처세술 4) 되도록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는 등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 기독교 운동의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것이 특성인 이상 공부하면서 모이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학생 기독교 운동은, 오늘의 구원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메세지는 무엇인가? 2000년전의 예수가 아니라 현존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기독교 학생은 한손에 성경을 들어야 하며 또 한 손에는 오늘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기 위해 신문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오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과제는 힘들이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Lay man 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 교회에 예속되어서 교회의 손과 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Mission 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선교의 대상이 아닌

선교자로서 민족사회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진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산업선교나 인권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관여하면 제제를 받게 되고 그렇다고 후퇴하니가 운동이 유명무실해진다. 우리는 이러한 와중에서 고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세상이 버린 곳이 학생 기독교 운동의 입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생 기독교 운동은 명분 주의와 권위주의등의 허상에 사로잡혀 출세와 명예만 추구하는 일에 도전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산을 처리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안간힘을 다해 출세하려는 사람이나 한에 싸이거나 체념 속에 있는 민중에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느 자녀임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역사를 위해 집을 진 사람이 그들이자:에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임을 알려 주면서 적극적인 의미의 그들의 역할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럴때에 유의 할 점은 민중을 의식화 한다고 할 때 권리를 찾아야하는데 제 이익이나 찾아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배금주의에 가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중 속에서 민중과 더불어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며 그 대열 속에 예수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 왔나? 교회팽창 아니면 자기 소비에만 치중 하지나 않았는지 자기비판을 해 보자. 대학 Y가 포함되어 있는 YWCA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해 왔나? 비기독교인과 접촉도 하고 취미와 관심거리를 매개로 회원활동도 했고 여성들에게 기술도 가르키고 변천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능력도 길러주고 문화에도 관여 하였으나 교회도 대학 Y도 현대인의 도전인 불의와 싸우는 일(정치)을 피해 왔다. 민족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지배하는 테이것을 피하고서 교회가 민족사회를 위한 선교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반성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한국 교회 구조와 예산책정에서 찾아본다. 한국교회의 사고는 압도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구원관"에 관한 조사 결과 구원은 개개인이 구원 받나 천당에 가는 것으로 믿는가에 있어서 목회자는 75%, 평신도는 67%이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있어서는.

목회자가 60%, 평신도가 52%로 나타나서 목회자가 더욱 교회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기는 설명의 필요가 없다. 평신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한 평신도 없이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 교회운영에 실제 참여하는 것은 불과 19%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 예산에 있어서 관리비로 25%, 교역자 생활비로 39-40%, 선교비로 16%, 그리고 교육비로 17%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예산은 교회 내에서 모두 소비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회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교회 보존을 위해 있고 기관은 기관 유지를 위해 있고 보면 한시야에 교회 십자가가 10여개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한 데 과연 이렇게 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오늘의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쯤 물어야 할 질문인 것 같다.

교회와 기독교 운동체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사회악을 사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방에 뒷치닥거리에 불과하며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는 말려들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대결이나 도전이 없으니까 진지성도 없고 타락해만 간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의 활력이나 회원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학생 기독교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기인 된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지금 "오늘"이라는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들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고 제약 당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제약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권리는 없고 주어진 것이라고는 책임과 의무 밖에 없다. 자기 주장을 할 때에는 "아직 어린녀석이" 실수나 잘못을 하면 "다 큰 녀석이" 하는 등으로 권리 주장에는 어린아이이고 책임에 있어서는 어른의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사회나 부모들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대학생 자신들도 그들의 현재의 삶이 내일을 위한 준비로 사는 경우도 있다. "삶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말도 있거니와 오늘을 사는 것이 곧 나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대학생이란 인위적인 제약을 포함해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특권도 있다.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과 가능성 발휘와 수용능력이 가장 크다. Full time으로 자기개발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대학시기이다. 졸업하자 달라진다. 대학원도 다르다. 대학 Y 회원들은 주어진 특권과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이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 호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생으로서의 민족적인 사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부분적이거나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계를 살펴보자. 오늘의 사회는 산업사회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공업화 사회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은 기계문명의 팽창을 번영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소모인 죽음의 문턱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약성서(창세기 11:1-9)기자는 이미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술문명과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한 바 있다. 기술문명이 바탕이든 공업화는 기계화와 분업화를 가져온다. 기계화는 대량생산을 하게 되고 그것은 소비사회를 초래하며 자원을 고갈 시키고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 일으킨다.

한편 분업화로 인해 인간은 한낱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되며 기계로 인하여 인간은 소외되어 인간의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비롯해서 인간의 주체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오늘의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병들게 하는데 더 공헌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발전이 더디더라도 물질 보다 생명이 우선함을 아는 사회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선교적 과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세계, 자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반적인 학생 기독교 운동과는 달리 대학 Y 운동의 특이한 본질의 하나는 여성운동으로서의 사명을 들 수 있다. 이 사명이 보다 분명해진 것은 학생 기독교운동의 3단계의 통합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였다고 본다. 대학 YWCA가 일반적인 학생 기독교운동의 본질에만 충실했다면 당연히 그 당시 통합 결의를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Y는 YWCA 체제 내에서의 학생기독교 운동이었고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독자성 선언이 지지를 얻게 된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Y 회원들에게 있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대학 Y 회원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운동이란 모순 속에서 모순을 의식할 때 발생한다. 75년 "여성의 해" 당시에 교육 받은 여성에게서 여성문제 의식의 희박성을 목격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오히려 여성문제의 도전이 저소득 그리고 저교육층의 여성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할 때 오늘의 교육이 얼마나 허망한 허상을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게 한다.

오늘의 여성 문제의 쟁점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차별철폐인데 운동의 지속 또는 확대가 되지 못한 이유를 여성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여성운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층 여성의 무자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 해 두는 것은 **Maxism** 을 모르고서 현대인으로서의 사고가 불가능하듯 여성문제를 눈 감아 두고 현대 여성으로 자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 까지의 역사는 여성부재, 청년부재, 약자부재, 장애인부재, 흑인부재등의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역사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새 시대는 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제2의 성 저자 보바르는 그의 저서 서두에서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남성 위주 사회가 여성을 종속적으로 만든 것을 간파한 말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이런이는 그것을 거꾸로 잡아서 "미래는 새지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노력만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운동으로서의 대학 Y의 이 시점에서의 중요한 우선 과제가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녀임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제는 여성이라는 인간 집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문화가 힘의 원리, 정복의 원리, 이기는 것이 진리라는 철학에서 출발된 소위 남성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문화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인간구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인간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마투쿠제는 feminist Socialist 라고 했다. 멸망의 요인이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와 인간에 의한 자연정복이라고 그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적이라고 할 때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배와 착취, 놀림과 수난에서 터득한 성품들로서 사랑, 포용, 양보, 희생을 비롯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고 하는등의 모성적인 삶의 모습은 의식없이 체념 속에서 받아들이면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 결단에 의한 것으로 삶에 옮기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신 바로 그 모습이며 우리가 닦으려는 삶이 아닌가?

하여간에 새로운 문화가 요청하는 가치가 지닌 여성이라는 인간집단이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식화 해서 사회갱신과 교회갱신과 인류구원에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가 활용 해 보지 않은 인류구원의 비방을 찾아 쓰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배와 착취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성서의 말 앞에 귀 기울이고 보면 분명히 여성을 통해서 인류구원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